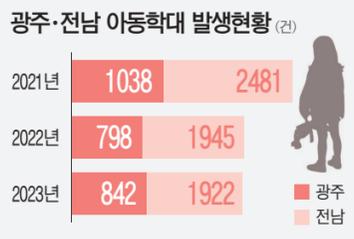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아이들을 지킵니다”

부모에 의한 폭력·부부갈등 원인 광주·전남 연간 2500건 이상 발생 가정 내 방임·정서학대 발견 어려워 '학대 의심' 즉시 신고 주변인 중요



#매일같이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박소은(가명)양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도움을 받았다. 박양의 부친은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고, 관련 치료 처방이 내려졌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업무 전담공무원의 개입으로 박양의 가정은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도움을 준 여성 경찰관을 보며 경찰의 꿈을 키운 박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올해 수능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한 빌라에서 매일 부부싸움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이지영(가명)씨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조사 결과, 당시 만 2세와 돌이 안 된 두 자녀를 둔 부모는 부부 갈등으로 이혼하고, 양육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원의 상담 처분으로 부모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으며 2년간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육법을 익히고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관계를 개선하고 근로활동을 시작했다. 부모간의 싸움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학대 문제도 함께 해결되며 사례는 종결됐다.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지난 200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된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 19일로 18년째를 맞았다. 정부기관과 아동단체 등은 매년 11월19일부터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 시행된 지 20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북구청어린이집, 북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18일 광주 북구청 로비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2024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서 풍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정신·신체적 학대와 방임 등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견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대한 학대 등이 의심될 때 즉시 신고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등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

계'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광주의 경우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 △2023년 842건, 전남은 △2021년 2481건 △2022년 1945건 △2023년 1922건 등에 달한다. 광주·전남의 신고 건수가 인구 규모와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발생

건수에 비해 발견율이 낮은 탓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발견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 사례 2만5739건 중 85.9%에 해당하는 2만2106건이 부모로부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30.5%의 부모(비가해자)에 이어 아동 본인이 24.9%로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이웃과 지인,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8.2%에 불과하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학대의 경우,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거나, 부모로부터 방임과 정서학대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이웃과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며

기고

김철호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1팀장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세계여성성장기금)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19일을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제23조)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한국에서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명확화

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근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런 변화의 계기는 199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먼저 1998년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방치로 인해 만이인 여아는 굶어 죽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 앞마당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둘째 남아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뿐만 양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극적 구조됐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각 경찰서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배치됐고, 친권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대피해아동을 원 가정에서 분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또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모티브가 된 2013년 경북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계모가 당시 8세 의붓딸을 장기간 극심한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드립세탁기에 의붓딸을 집어 넣어 돌리고,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가 이어졌다. 계모는 자신의 죄를 사망한 아동의 11세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가장 최근의 변화로는 2020년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현장조사(공공)와 사례관리(민간) 영역을 구분 짓게 됐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에서는 순차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의 역사는 어린 영혼들의 희생이 있어야 개선되

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특성이 있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중 94.2%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양육방법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뤄 볼 때,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 사회적 인식변화 못지않게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체벌 대신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양육을 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

장원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단체와 함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신뢰를 강조하는 '긍정양육 129 원칙'을 선포하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아동존중의 양육 태도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소통의 첫 걸음을 돕고자 '충분히 좋은 우리'라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법민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18회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모든 아동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좋은 어른들'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